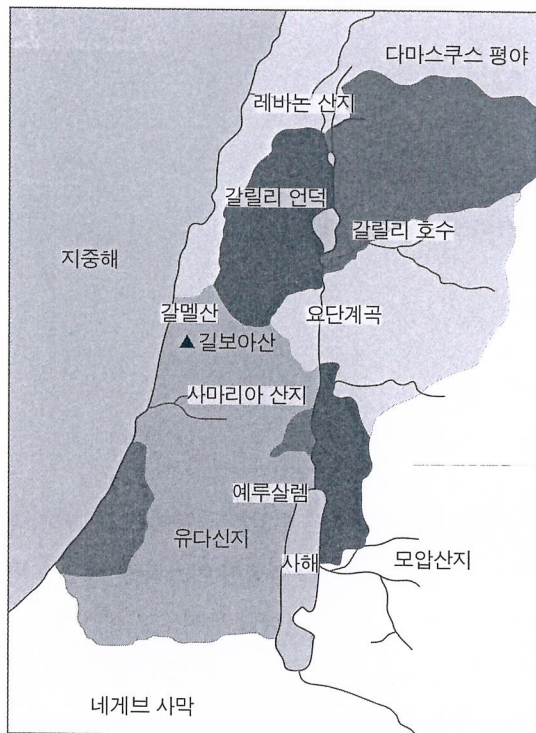


제 47 강

# 수난 당하시는 예수 (마가복음 연구 II)

■ 성경본문 마가복음 8:31-16:20 ■

## 프렐류드(Prelude)



이스라엘

오늘 우리는 마가가 증언하는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며 그 뜻

을 생각합니다.

‘수난의 책’으로 알려진 마가복음의 후반부(막 8:31-16:20)는

1. 죽음과 부활하심의 예고,(막 10:32-34)
2. 예루살렘 입성(막 11:1-11)
3. 최후 만찬(막 14:22-25)
4. 겟세마네 동산 기도(막 14:32-42)
5. 체포, 공회 재판, 빌라도의 사형 선언
6. 십자가상의 죽음, 매장(막 15:16-47)
7. 부활, 승천(막 16:1-20)으로 끝을 맺습니다.

부활 사건보다 수난과 십자가 사건을 더 길게 수록한 마가복음은 고난 중에 신음하는 마가공동체 신도들을 위로하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고난의 종이 된 것을 알려줌으로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 I. 주요 내용

1. 고난을 향한 예루살렘 입성(마가복음 8:31-13:37)
2. 예수의 수난 이야기(마가복음 14:1-16:20)

## II. 시대적 배경

주후 66년에서 73년까지 이스라엘은 초토화되고, 수없는 사람이 죽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전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무력으로는 패했으나, 메시아가 오셔서 어느 날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라는 대망이 점점 더 팽배해 갔습니다. 그중에는 무력으로 저항하는 게릴라들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7절에 언급된 바라바는 그 두 목이었습니다.

바로 이 긴급한 때에 예수께서는 여러 가지 이적을 베푸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이때 민중과 제자들은 이 예수를 대망의 메시아로 보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예수께서 정치적 메시아가 아님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자연을 제어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들을 품으시는 고난의 종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를 고난 받는 하나님의 아들로 부각시켜 마가공동체가 겪고 있는 아픔을 치유하려 했습니다. 중국에는 로마와 이 세상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고난의 예수로, 그리고 다시 사신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소망을 증언하려 했습니다.

#### 〈연대표〉



### III. 말씀과 해석

#### 1. 고난을 향한 예루살렘 입성(마가복음 8:13-13:37)

예수께서는 자신이 당할 수난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예고하셨습니다(막 8:31, 9:31, 10:32-33). 그중에서도 세 번째 예고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삼 일만에 살아나리라”(막 10:33-34)

예수를 따르면 자기 목숨을 버리고 십자가를 져야 하며(막 8:34-35), 섬김을 받고자 함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겨야 했습니다(막 9:35-37, 10:43-45).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도’(弟子道)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비밀을 믿지도, 깨닫지도, 수용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선생님이

유다의 왕이 되면, 누가 윗자리에 오를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막 9:33-34, 10:35-37). 그래서 베드로도 제자들도 십자가 앞에서 모두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수난을 앞두고 예수는 외로운 ‘고난의 자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막 11:1-11). 그리고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막 11:15-19), 민족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막 13:1-2)를 예고하시고, 이 세상의 종말을 가르치셨습니다. 엄중한 민족적 위기 앞에서 마가는 예수를 칼과 창 의 메시아가 아니라, 가난한 자를 위한 ‘고난의 메시아’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 2. 예수의 수난 이야기(마가복음 14:1-16:20)

예수의 수난은 십자가의 아픔보다 먼저 제자들의 배신에서 온 아픔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향하여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지만(막 14:21)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도 모두 선생님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막 14:21).

예루살렘 입성, 겐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예수에게는 처절한 고독의 길이고 순간이었습니다. 마가는 여기서 마가공동체의 아픔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아닌 인간 누구나가 순간마다 경험하는 배신과 아픔 그리고 거기서 생겨나는 고독을 예수께서는 홀로 지고 가셨습니다(막 14:50).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음모와 가룟 유다의 배반 앞에 당당히 맞선 예수는 체포되시고 대제사장의 심문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이던 빌라도에게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가 로마 제국의 위협이 아님을 알고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동족인 유다의 무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막 15:15) 예수를 넘겨주었습니다.

그 후 예수는 온갖 희롱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옷은 제비를 뽑아 나누어 가지고, 십자가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뜻말이 붙고, 좌우편에는 두 강도가 함께 처형되고 있었습니다. 여섯 시간 후 예수께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를 외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이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성전 휘장이 갈라지고, 처형 현장의 로마 백



부장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고백을 합니다(막 15:39). 제자가 아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세마포에 싸서 무덤에 안장하고 돌로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예언하신 대로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막 16:19).

#### IV. 성찰과 나눔

1. 마태복음과 함께 마가복음은 극도의 ‘반’(反)로마주의(anti-Romanism)를 높이고 또 지향하는 복음서입니다. 문제는 왜 예수의 복음서가 이렇듯 강렬한 정치적 색채를 담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2. 마태복음은 예수를 모세와 율법보다 큰이로 부각시켜 당시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는 유대주의와 로마 제국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를 부각시키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3. 그러나 마가복음은 거라사 귀신, 로마까지를 축출하시는 예수의 능력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와 예루살렘을 초토화하고 지금도 가혹한 핍박을 가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멸망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마가공동체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4. 동시에 예수는 고난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는 마가공동체의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함께 그리고 대신 짊어지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수난과 십자가 이야기를 길게 수록하였습니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예루살렘 멸망을 눈으로 지켜보면서 수록한 눈물의 복음서였습니다.

5. 십자가는 권력 앞에 패배로 보이지만, 십자가는 제 2 이사야가 예언했던 고난의 종인 당하는 수난이었습니다. “그가 찔림으로 … 우리는 나음을 받는다”(사 53:5)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이었습니다.